

# 불투명한 中 경기에 韓 수출방향은?

### 위안화 약세에 우리 금융시장 원화·주기도 출렁 中 부동산발 불안, 하반기 외환시장 리스크 우려

위안화가 연중 최저치를 갱신하는 등 중국의 부동산발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그 영향이 우리 금융시장으로 전이되고 있다. 원화 값이 떨어지고 주가가 출렁이고 있어 앞으로 우리 경기에 다칠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외신에 따르면 전날 역내 위안·달러 환율은 7.3090위안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에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7.31위안을 넘기도 했다. 역내 위안·달러 환율이 7.3280위안을 넘을 경우 2007년 이후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도 장중 7.3497위안을 기록하며 지난해 11

월 초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위안화 약세에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위정했다. 전날 기준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보다 5.10원(0.38%) 오른 1342.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 1340원을 돌파한 건 지난 5월2일(1342.1원) 이후 3개월 만이다.

중국 실물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대만과 일본, 우리나라 등 아시아권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부동산발 불안 심리가 퍼지면서 하반기 외환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 당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하면서도 당장 우리 금융

시장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거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멀어질수록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실제 위안화의 부진으로 원화값이 동반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져 기업 실적 악화나 민간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 1위 상대국인 중국의 경기가 계속 침체기로 접어들면, 우리 경기 회복도 더뎠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2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올해 1~7월만 따지면 전년 동기보다 25.9% 감소했다.

그럼에도 최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점차 회복되면서 다시금 수출의 기저개를 쥔 단계

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지난해 10월 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보다 감소하고 있지만 점차 회복해 오는 10월께 증가세로 전환할 거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지만 또 다른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가 건실해 이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도 중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수출할지, 조금 빠른 경기부양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 서비스 R&D 사업 선정

### 전북대 이정환 교수, 1억5000만원 지원받아 흡스바이오사이언스 의약품 대마 소재 개발 생산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나서기로



전북대학교 이정환 교수(생명과학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3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 R&D 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정환 교수는 "많은 가치를 품고 있는 의약품 대마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이번 사업으로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의약품 대마의 생산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지역의 농생명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마약 근절 위해 관심 가져주길”

### 한종관 전북신보 이사장, 'NO EXIT' 캠페인 동참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이 지난 18일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이다.

해당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사회관계망(SNS) 등에 게시한 후,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이사장은 "이번 'NO EXIT' 캠페인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깨닫고 마약근절을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이 지난 18일 마약 예방 릴레이 챌린지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

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농어촌공, AI 탑재 녹조청소로봇 기술 시연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난 18일 경기 의왕 소재 왕송저수지에서 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기술 개발사업(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일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AI) 탑재 녹조청소로봇(무인자율이동 조류포집장치) 기술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자율이동형 조류포집장치 및 처리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수거된 녹조 재자원화 등 녹조 사후

### 자율이동형 조류포집장치·처리시스템 성능 검증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그동안 수변 저수심 수초제거에 밀집된 녹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력을 통한 제거 외에는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녹조청소로봇'은 현장 인력 없이 수초대 녹조 제거가 가능하며 컴팩트한 구조로 저수심 지대 접근성 및 저수지 간 이동이

용이하게 고안됐다.

가정용 로봇청소기와 같이 인공지능(AI) 기술 탑재로 관제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녹조를 찾아 감시·제거가 가능하고 통관 관리가 쉬워 선제적 녹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병호 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한국농어촌공사 부설 농어촌연구원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탑재 녹조청소로봇.

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 대·중기 동반성장 문화 확산...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추진

### 전북중기청, 기업 우수사례 발굴... 대기업·공공기관 등 대상 분기별 1회·회차별 5건 이내로 선정... 1차 접수 내달 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은 대·중소기업 간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윈윈 아너스(WIN-WIN HONORS)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윈윈 아너스'는 대기업 등이 협력사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상생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들이다. 그리고 선정된 상생활동('윈윈 아너스')을 모델화하여 타 기업으로까지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것이 바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이다.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에는 명예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TV 방송 홍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세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유공 정부포상 우대, 가점배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기업 등의 상생협력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 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통해 윈윈 아너스를 모델화한 후, 상생협력 출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타 기업으로의 확산을 추진한다.

'윈윈 아너스' 신청은 대기업, 중견·중소·벤처기업, 공공기관 등 모

두 가능하며, 신청서 등을 직접 제출하거나 협·단체, 기업 국민 등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선정은 동반성장 전문가들이 중요도·난이도, 이행노력, 추진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매년 분기별 1회, 회차별 5건 이내로 할 계획이다.

올해는 제1차로 8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www.win-win.or.kr) 내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태용 청장은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이어온 동반성장 노력을 적극 발굴·홍보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 전북환경청, 오늘 새만금호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훈련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21일 오후 3시에 새만금호 육구수수로(군산시 옥서면 하계포구 앞)에서 수질오염사고 대비 합동 방제 훈련을 실시한다.

같은 날 실시하는 2023년도 정부-지연습과 연계한 훈련으로, 전시 상황에 따라 군산공항으로 유류 운반중인 탱크로리가 전복되어 유류 약 2,000L가 수심이 낮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수질오염사고를 야기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다.

전북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계룡건설(주), 엔이티(주) 등 9개 기관 4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김육기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